

2026-3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해외 미디어 동향

2026 3rd WORLD MEDIA TRENDS

BBC의 AI 거버넌스와 저널리즘 혁신:
생성형 AI 시대, 신뢰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표지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

2026 3rd WORLD MEDIA TRENDS

2026 해외 미디어 동향

3호

BBC의 AI 거버넌스와 저널리즘 혁신:
생성형 AI 시대, 신뢰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01

들어가며 03

02

생성형 AI 시대와 BBC의 대응 05

03

BBC AI 거버넌스의 원칙과 운영 체계 11

04

BBC 뉴스룸의 AI 활용과 내부 운영 16

05

생성형 AI 파일럿과 뉴스 서비스 혁신 21

06

신뢰를 설계하는 AI 거버넌스 29

07

나가며 32

이윤녕

BBC 선임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정치경제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EBS 공채 기자로 입사해 교육부, 국회, 국무총리실 등을 출입했으며, 난독증과 수화포기자 문제를 다룬 기획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두 차례 연속 수상했다. 이후 2019년 영국 공영방송 BBC 본사에 입사해 런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 BBC 본사 뉴스룸의 편집 품질 및 기준 준수(Editorial Quality and Compliance) 부서 선임 기자로 뉴스 편집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저널리즘 원칙이 기사 전반에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2년 BBC 차세대 위원회(BBC Next Generation Committee)에 선발돼 BBC 최고집행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했으며, 2024년 BBC 우수 공헌상(BBC Outstanding Contributions Awards)의 최고 영예 중 하나인 라이징 스타상(Rising Star Award)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년부터 매년 BBC 뉴스상(BBC News Awards) 심사위원으로 저널리즘 혁신(Innovation Journalism) 분야를 포함한 핵심 부문의 심사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뉴스룸 변화와 저널리즘의 신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둘러싼 화두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AI가 미디어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초기에는 ‘AI가 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새 기술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같은 질문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술 활용과 허용 범위 문제를 넘어 생성형 AI로 BBC 저널리즘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쪽으로 관심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되던 초기만 해도 BBC는 생성형 AI에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 생성형 AI로 기사를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험을 적극적으로 벌이던 시기에도, BBC는 자체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일선 기자와 제작자의 생성형 AI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조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원칙과 구성원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취재와 제작 과정 어디에도 생성형 AI를 성급히 들이지 않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세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BBC가 생성형 AI 도입을 미루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 전문가와 편집·정책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로 구성된 이른바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다양한 시범 적용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BBC는 2024년 2월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지침(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조직 차원의 원칙을 구체화했다.¹⁾ 이 지침에서 BBC는 AI를 쓰더라도 항상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우선하며, AI가 콘텐츠 제작에 쓰였다면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알린다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1) BBC, <An update on the BBC's plans for Generative AI (Gen AI) and how we plan to use AI tools responsibly>, BBC Media Centre, 2024.2.28., <https://www.bbc.com/mediacentre/articles/2024/update-generative-ai-and-ai-tools-bbc>

[그림 1] BBC는 2024년 2월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생성형 AI 활용 원칙과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



* 출처: BBC

지침이 마련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AI 활용 기준은 조직 차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에 관련 움직임은 한층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생성형 AI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뉴스룸에 맞는 자체 AI 도구 개발도 추진됐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자리도 크게 늘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뉴스·미디어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있다.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이 강화되고 독자의 소비 방식이 바뀌면서, 뉴스룸도 기존 제작·배포 방식을 넘어선 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BBC 뉴스룸에서 생성형 AI는 이제 ‘사용할 것인가’라는 초기 단계의 질문을 넘어, ‘BBC가 지향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독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과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BBC의 생성형 AI 접근 방식은 ‘대체(replacement)’보다는 ‘확장(augmentation)’에 가깝다. 기자와 제작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널리즘의 생산·전달 방식을 넓히는 도구로 보는 것이다. BBC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파일럿과 실험 프로젝트도 이 철학 위에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목표는 AI로 뉴스를 더 많이 찍어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개발하고 뉴스룸 운영의 효율을 높여 BBC 저널리즘의 영향력과 도달 범위를 넓히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다시 말해 이용자 경험(audience experience)을 개선하고 뉴스룸 내부의 업무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BBC는 또한 ‘모두를 위한 방송(Value for All)’이라는 공적 책무를 가진 언론으로서 AI로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도 적극 탐색하고 있다.

지금 BBC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AI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서가 아니다.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가치와 신뢰를 어떻게 지키고 설계해 나갈지 하나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개별 언

론사의 기술 실험을 넘어, 공영언론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원칙화하고 관리하며 실제 뉴스룸 운영에 적용하는지를 BBC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시대에 저널리즘의 생산·전달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신뢰는 어떤 원칙과 체계로 설계 되고 유지되는지 조명해 본다.

02

2026 3rd WORLD MEDIA TRENDS

생성형 AI 시대와 BBC의 대응

1) 생성형 AI 시대를 준비하는 BBC: AI Unpacked Week

올해 초 BBC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 주간 ‘AI 언팩드 위크(AI Unpacked Week)’를 선보였다.²⁾ 2026년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TV, 아이플레이어(iPlayer)³⁾, 라디오, 사운즈(Sounds)⁴⁾, 온라인 등 BBC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AI가 우리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들여다봤다.⁵⁾

[그림 2] BBC는 2026년 3월 일주일간 진행된 AI 언팩드 위크를 통해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영향을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 출처: BBC

2) BBC, <AI Unpacked>, <https://www.bbc.co.uk/topics/cx2408k997jt>

3)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4)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오디오 전용 플랫폼

5) BBC, <AI at the BBC – an update>, BBC Media Centre, 2026.2.10, <https://www.bbc.co.uk/mediacentre/articles/an-update-on-ai-at-the-bbc>

많은 영국인이 이미 일상에서 AI를 쓰고 있던 만큼 이 특별 주간은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BBC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AI 사용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매주 AI를 쓰는 사람이 전체 영국 인구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⁶⁾ 특히 젊은 세대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일부 시민은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시대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런 변화 속에서 BBC는 새 기술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시민과 공유하고, 사람들이 AI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 공영언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BBC 콘텐츠 최고 책임자(Chief Content Officer) 케이트 필립스(Kate Phillips)는 AI 언팩드 위크를 시작하며 “AI가 우리 사회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BBC가 지속해온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⁷⁾ 드라마, 교육 콘텐츠, 뉴스, 토론 등 AI 언팩드 위크 동안 방영된 프로그램은 AI가 교육과 창작,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케이트 필립스는 “중대한 기술 혁명의 문턱에 선 지금, BBC는 시청자들이 조언과 통찰을 얻고 AI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받는 공간(trusted destination for advice, insight, and engagement)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를 위한 AI 언팩드 위크에 앞서 BBC 내부에서는 기자와 제작자를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행사를 진행했다. BBC News의 신설 조직인 AI·혁신·성장(AI, Innovation and Growth) 부서가 주관한 이 행사는 뉴스 구성원들이 AI의 가능성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AI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BBC의 신임 AI·혁신·성장 총괄 디렉터(Director of AI, Innovation and Growth) 안잘리 카푸어(Anjali Kapoor)는 내부 AI 언팩드 위크를 시작하며 “직원들이 AI를 일상적인 업무와 연결해 이해하고, BBC의 광범위한 AI 전략을 파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열린 40여 개의 세션과 토론, 워크숍은 AI라는 새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뿐 아니라, AI가 뉴스 제작 방식과 저널리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세션에서 다룬 주제도 다양했다. 고위급 편집 책임자들이 AI 시대 BBC 뉴스 전략을 직접 공유했고,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 팩트체크와 검증 업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짚었다. BBC 외 다른 미디어 조직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뉴스룸 구성원이 직접 AI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글로벌 뉴스 영역에서는 AI 기반 번역 기술이 언어 장벽을 낮춰 더 많은 독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BBC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생성형 AI 파일럿을

6) BBC, <Generative AI and Audiences>, <https://www.bbc.co.uk/aboutthebbc/documents/generative-ai-and-audiences.pdf>

7) BBC, <BBC set to launch AI Unpacked Week in March>, BBC Media Centre, 2026.2.10, <https://www.bbc.co.uk/mediacentre/2026/bbc-ai-unpacked-to-launch>

소개하며 실제 제작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도 있었다.

[그림 3] BBC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AI 언팩드 워크는 40여 개의 세션과 워크숍을 통해 AI 시대 뉴스 제작과 저널리즘의 변화를 탐색했다.



* 출처: BBC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이 AI 시대를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도록 돕고, 대내적으로는 뉴스룸 구성원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 성격이 다른 두 개의 AI 언팩드 워크는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를 사회와 언론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대적 전환으로 보는 BBC의 시각을 드러낸다.

2) BBC의 AI 전략과 대응 배경

생성형 AI의 등장은 뉴스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도 안겼다. 언론사들은 AI로 뉴스 제작과 편집, 배포 등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동시에 정보의 정확성과 편향, 저작권, 허위정보 확산 등 저널리즘의 신뢰와 직결되는 새로운 과제와도 맞닥뜨렸다. 무엇보다 AI를 쓰는 과정에서 독자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전 세계 뉴스 조직이 공통으로 마주한 핵심 질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환경과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뉴스룸은 이제 어떤 원칙 아래 AI를 쓰고 이를 저널리즘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무게중심이 ‘기술로 무엇이 가능한가’를 넘어 ‘어떤 원칙과 책임 아래 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BBC가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방식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BBC는 지침을 발표하기 앞서 2023년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 대응 방향을 내놓으며, AI를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했다.⁸⁾ 당시 BBC는 “혁신(Innovation)

8) Talfan Davies, R., <Generative AI at the BBC>, BBC Media Centre, 2023.10.5.
<https://www.bbc.co.uk/mediacentre/articles/2023/generative-ai-at-the-bbc>

은 언제나 BBC의 핵심 가치이자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생성형 AI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BBC는 1922년 첫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이래 컬러 텔레비전 도입, 온라인 서비스 확대, 모바일 플랫폼 발전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새 기술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꾸준히 넓혀왔다.

BBC가 주목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기존 콘텐츠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고 언어·접근성의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BBC 콘텐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도달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배경과 필요를 가진 다양한 시청자(diverse audiences)에게 더 적합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뉴스룸과 조직 내부의 업무 방식 개선이다. BBC는 콘텐츠 제작·편집, 검색과 발견(discovery), 아카이브 활용, 업무 흐름 등에서 생성형 AI가 구성원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를 AI가 보조함으로써 기자나 제작자가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하도록 하려는 구상이었다.

물론 BBC는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적절한 원칙과 통제 없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윤리 문제와 법적·저작권 이슈는 물론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편향(bias) 확산 등으로 저널리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BBC는 “이러한 위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These risks are real and cannot be underestimated)”며, 기술 발전에는 비전(vision)과 함께 끊임 없는 경계(vigilanc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⁹⁾ 이처럼 BBC는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도 공영언론으로서 저널리즘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는 쪽에 전략의 무게를 실었다.

3) 공영언론으로서의 문제의식

BBC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활용 방향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¹⁰⁾ 이는 이후 BBC AI 거버넌스 체계의 출발점이 됐다.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always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ublic)”는 것이다. BBC는 생성형 AI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여지를 살피면서도 신뢰 훼손, 저작권

9) Talfan Davies, R., <Generative AI at the BBC>, BBC Media Centre, 2023.10.5.
<https://www.bbc.co.uk/mediacentre/articles/2023/generative-ai-at-the-b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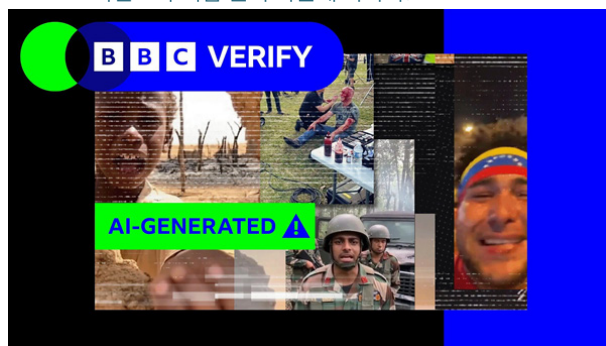
10) Talfan Davies, R., <Generative AI at the BBC>, BBC Media Centre, 2023.10.5.
<https://www.bbc.co.uk/mediacentre/articles/2023/generative-ai-at-the-bbc>

보호, 콘텐츠 발견 방식의 변화 등 새로운 위험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 기업, 미디어 파트너, 규제 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투명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원칙은 “항상 재능과 창의성을 우선한다(always prioritise talent and creativity)”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기자, 작가, 제작자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스토리텔링이 여전히 저널리즘을 지탱하는 축이라는 의미다. 어떤 기술도 인간의 창의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BBC는 생성형 AI를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써야한다고 봤다.

세 번째 원칙은 “시청자에게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한다(always be open and transparent with audiences)”는 것이다. BBC는 공영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신뢰(trust)’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에 쓰였다면 이를 명확히 알리고 최종 책임은 BBC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사람의 검토(human oversight)를 중요한 절차로 제시하며, AI가 만든 정보나 결과물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림 4] 콘텐츠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BBC AI 거버넌스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다.



* 출처: BBC

이 원칙들은 이후 BBC가 마련한 지침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됐다.¹¹⁾ 이 지침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AI 활용이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과 편집 가치(editorial values)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BBC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도 곧바로 생성형 AI 활용을 확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024년 2월 BBC가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업데이트를 보

¹¹⁾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

면, 대부분의 초기 단계 파일럿은 철저히 내부 실험 중심으로 운영됐다.¹²⁾ 새 기술이 뉴스룸에 어떤 기회를 주는지, 동시에 어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충분히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었다. 당시 BBC는 기존 콘텐츠의 가치 확대(maximising value of existing content), 새로운 시청자 경험 개발(new audience experiences), 조직 내부 업무 방식 개선(make how we do things quicker and easier) 등 세 영역에 걸쳐 모두 12개의 생성형 AI 파일럿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BBC의 생성형 AI 활용은 먼저 명확한 원칙을 세운 뒤, 뉴스룸과 서비스 환경에서 실질적인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활용 범위를 넓히기 앞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이고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지부터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이 실험과 검증 과정은 이후 BBC가 생성형 AI 활용을 제도화하고 조직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12) BBC, <An update on the BBC's plans for Generative AI (Gen AI) and how we plan to use AI tools responsibly>, BBC Media Centre, 2024.2.28., <https://www.bbc.com/mediacentre/articles/2024/update-generative-ai-and-ai-tools-bbc>

생성형 AI를 뉴스룸에 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기준 아래 써야 하는가”일 것이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에서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AI가 만들거나 보조한 정보가 정확한지, 편향은 없는지, 시청자와 독자가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B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성형 AI 활용을 개별 구성원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AI 활용 원칙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편집 가이드라인, 투명성(transparency) 기준, 위험 관리 절차, 조직 차원의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즉, BBC가 설계한 AI 거버넌스¹³⁾의 핵심은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널리 확산시키느냐가 아니라, AI 활용 전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있다.

[그림 5] BBC는 전담 조직과 AI 리스크 자문 그룹 등을 운영하며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 출처: BBC

13)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출처: 우리말샘). 일하는 방법을 정하고 감시하는 상위 구조로, 어떤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가(권한 배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책임 소재), 결정을 내리는 사람/조직을 다시 누가 점검하는가(감시와 견제) 등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권한, 책임, 견제가 문서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절차로 존재하느냐가 거버넌스의 실제 존재 유무 판단의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음

1) AI 활용의 출발점: 편집 가치와 책임의 원칙

BBC의 지침은 AI를 활용하는 구성원과 BBC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 제작자 모두가 따라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AI 활용이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과 편집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¹⁴⁾

BBC가 AI 활용에서 가장 무겁게 두는 가치는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중립성(impartiality), 개인정보 보호(privacy)다.¹⁵⁾ 이 원칙은 AI가 콘텐츠 제작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 쓰이든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지침이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가 창의성과 혁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다양한 활용 방식, 충분한 사람의 감독이 빠질 가능성은 AI 활용 과정에서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BBC는 AI 활용 과정에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항상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며, 충분한 사람의 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처럼 BBC는 AI를 어디에 쓸 것인가보다 어떤 원칙과 책임 체계 아래 쓸 것인가를 더 무겁게 본다. 이는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공영언론으로서의 가치와 신뢰를 우선하는 BBC AI 거버넌스의 기본 방향을 보여준다.

2) ‘사람의 검토’ 원칙

BBC AI 거버넌스에서 가장 무거운 원칙 하나는 바로 ‘사람의 검토’이다. BBC는 AI가 편집 과정 어디에 쓰이든 반드시 사람의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는다. 다만 모든 AI 활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AI가 쓰이는 목적과 영향에 따라 사람이 검토하는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BBC의 설명이다.¹⁶⁾

예를 들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처럼 대규모 이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그 결과물이 BBC의 편집 가치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수준에서 사람의 감독이 이뤄진다. 반면, 뉴스 기사 등 저널리즘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에 AI를 쓸 때는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람이 직접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¹⁴⁾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

¹⁵⁾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roduction>,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

¹⁶⁾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Editorial issues in the use of AI>,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BBC의 편집 판단 안에서 어떻게 검증되고 승인되는가다. 이를 위해 BBC는 뉴스 보도 등 저널리즘 목적으로 AI를 쓰는 경우, 반드시 최종 책임을 맡는 선임급 편집 책임자(senior editorial figure)를 지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편집 책임자는 구성원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BBC가 새로 만든 사내 AI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런 선임급 편집 책임자를 위한 별도 과정도 마련돼 있다.

3) 투명성: AI 시대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

생성형 AI 시대에 언론사가 마주한 가장 큰 변화 하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전보다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AI가 만든 결과물과 사람이 만든 콘텐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이제는 콘텐츠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도 이용자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BBC 역시 이런 이유로 투명성을 AI 거버넌스의 축으로 삼았다.¹⁷⁾

BBC는 투명성 원칙과 관련해, 만약 제작 과정에서 AI가 쓰였다면 시청자와 구성원 모두가 그 사용 여부와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⁸⁾ 단순히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왜 썼는 지까지 상황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 역시 콘텐츠 제작·표현·배포 과정에서 AI가 쓰였다면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투명성을 단순한 면책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시청자와의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책임으로 본다는 뜻이다.

4) ‘책임 있는 AI’ 팀과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BBC AI 거버넌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활용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까지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다. BBC는 현재 조직 전반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¹⁹⁾

¹⁷⁾ BBC, <AI Transparency>, Supplying the BBC, 2026.5.5, <https://www.bbc.co.uk/supplying/working-with-us/ai-transparency/>

¹⁸⁾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Use cases>,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usecases>

¹⁹⁾ BBC, <Responsible AI Policy>, BBC Corporate Policy, 2023.12.1, <https://www.bbc.co.uk/aboutthebbc/documents/responsible-ai-policy.pdf>

이 신생 조직의 역할은 AI 활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BBC의 가치와 법적·규제적 책임에 맞춰 AI를 책임 있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책임 있는 AI 팀은 BBC의 AI 원칙(AI Principles)과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관리하고, AI 활용 정책과 가이드, 도구 개발을 지원한다. 각 팀이 AI 도구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도구를 들일 때도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BBC는 AI 활용을 공공 서비스 가치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이 BBC의 공적 목적에 맞는지 평가하는 것도 책임 있는 AI 팀의 주요 과제다.

5) AI 리스크 자문 그룹: 책임 있는 검토 체계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대개 한 영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편집 차원의 정확성·공정성·중립성 문제부터 저작권과 권리,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까지 여러 요소를 동시에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BBC는 이런 복합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AI 리스크 자문 그룹(AI Risk Advisory Group, AIRA)’을 운영한다.²⁰⁾ AIRA는 편집 정책(Editorial Policy)을 비롯해 법률(legal),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상업·사업 관련 사항(commercial and business affairs),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업 조직이다.

이들 전문가는 AI 활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편집적·비편집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사례가 BBC의 보도 원칙과 법적·윤리적 기준에 맞는지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는 AI 거버넌스를 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저널리즘·법률·윤리·보안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 허용과 제한의 기준: BBC가 설정한 AI 활용의 경계

BBC의 AI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무조건 확장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가다. BBC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²⁰⁾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Seeking guidance>,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usecases>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데이터나 문서 분석, 아이디어 구상, 스토리보드 작성 등에서는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해석의 정확성이 중요한 뉴스와 시사 콘텐츠에서는 AI가 사람의 저널리즘적 판단을 대신하거나 최종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뉴스(News), 시사(current affairs), 사실 기반 저널리즘(factual journalism) 영역에서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BBC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생성형 AI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AI는 사실을 확인해 답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드는 ‘환각(hallucination)’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²¹⁾ 또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모방할 가능성,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 만큼 BBC가 강조하는 것은 AI 활용에 있어서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더 명확한 경계를 정하는 일이다.

결국 BBC의 AI 거버넌스는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기회를 살리면서도, 공영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편집적 책임과 신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이를 위해 BBC는 AI 활용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편집 가이드라인과 위험 검토 절차,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기술 활용 기준과 책임 주체를 구체화했다.

21)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Editorial issues in the use of AI>,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

앞서 살펴본 AI 원칙과 거버넌스 체계는 BBC가 생성형 AI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거버넌스는 문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실제 취재·제작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구성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며 일상 업무에서 책임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 만큼 생성형 AI 시대 언론의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구성원들이 그 기술을 안전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쓸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췄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BBC가 AI 교육과 내부 운영 체계에 꾸준히 투자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AI 슈퍼유저: 뉴스룸 안에서 확산되는 AI 활용 문화

우선 BBC는 생성형 AI를 일부 전문가만 다루는 기술로 남겨두지 않았다. 대신 AI를 잘 아는 현업 기자들이 먼저 활용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뉴스룸 전체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룸의 AI 슈퍼유저(AI Superusers) 프로그램이다. BBC 뉴스는 개별 부서와 지역 방송사, 스포츠, 월드서비스 등 다양한 팀에서 약 40명을 선발해 AI 도구 활용 등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뉴스룸 내 AI 활용의 핵심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여기서 슈퍼유저란 특정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도구를 먼저 익혀 실제 업무에 쓰면서 동료의 활용을 돕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의 역할은 새 AI 도구를 먼저 써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 업무의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안전한 활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뉴스룸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실험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AI 기술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뉴스 현장에서 AI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의 활용을 돕는 핵심 인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런 접근은 BBC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BBC는 이전에 새 시스템이나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슈퍼유저를 중심으로 현장 활용 역량을 넓히는 방식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이 새 기술을 동시에 익히고 업무에 안착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BBC는 새 기술을 중앙 조직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실제 뉴스를 만드는 현장 기자들이 먼저 활

용 경험을 쌓고 이를 동료와 공유하며 뉴스룸 전체로 퍼뜨리는 방식을 써왔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분야일수록 매뉴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험하며 경험을 나누는 문화는 새 기술을 조직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뉴스 AI 허브(News AI Hub)’도 눈여겨볼 만하다. 뉴스 AI 허브는 기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도구와 프롬프트(prompt), 활용 사례, 각종 가이드라인을 한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내부 플랫폼이다. 바쁜 뉴스 제작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새로운 AI 기반 업무 흐름과 AI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플랫폼의 목적이다. 이는 조직 곳곳에서 쌓인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퍼뜨리는 지식 허브 역할도 함께 한다.

2) AI 교육: 뉴스룸의 AI 활용 역량 강화

BBC에서 AI는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지는 기술이 아니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쓰려면 먼저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활용 원칙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AI 활용 역량이 저널리즘의 새로운 경쟁력이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초기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함께 추진한 작업 가운데 하나도 바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이에 따라 BBC의 사내 교육 기관인 BBC 아카데미(BBC Academy)는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들은 AI가 콘텐츠 이용자와 언론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전에 없던 위험도 안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됐다.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직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responsible use)’을 조직 전반이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전 직원은 현재 개설된 기본 AI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BBC의 AI 원칙(BBC AI Principles), AI 활용 정책과 편집 가이드라인, BBC가 승인한 AI 도구를 확인하고 쓰는 절차, 새로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승인 과정, AI 활용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팀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까지 폭넓게 다룬다.

[그림 6] BBC는 생성형 AI 활용에 앞서 필수 교육을 통해 원칙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BBC

필자도 이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데, AI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실무 중심 교육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내용은 훨씬 깊이가 있었다.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앞서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써서는 안 되는가’, ‘어떤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가’,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곱씹게 만드는 교육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AI를 편집적 판단(editorial judgement)의 연장선에서 다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보다, AI 활용이 저널리즘의 가치와 시청자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는 데 훨씬 더 많은 교육 시간을 할애했다.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편집하는 직원은 기본 과정 외에 별도의 심화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BBC의 AI 활용 편집 가이드라인(AI Editorial Guidance)을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상황과 제한되는 상황, AI 활용 중 필요한 저널리즘적 판단, 정확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준수할지를 실제 뉴스 사례로 검토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BC의 AI 교육은 BBC 왕립 칙허장(BBC Royal Charter)²²⁾이 규정하는 공적 책무(public service commitments),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의 규제와 관련 법적 기준, BBC AI 원칙, 책임 있는 AI 정책 등을 모두 엮어 이런 기준이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하도록 짜여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자들이 AI 활용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도 편집적 독립성(editorial independence)과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를 지킬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22) 영국 국왕이 수여하는 칙허장으로 BBC의 존재 근거와 공적 역할, 독립성, 지배구조를 규정함. 단순한 설립 허가가 아닌 BBC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정한 최상위 규범

이와 함께 BBC는 고위급 리더와 의사결정권자(senior leaders)를 위한 AI 브리핑(AI briefing)도 마련해 두고 있다. 새로운 활용 사례와 지식을 공유하는 내부 세션과 워크숍도 꾸준히 열린다. 생성형 AI 기술과 활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BBC의 교육 체계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위험 요소를 반영하며 계속 업데이트된다.

3) AI 핸드북: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실무 기준

교육이 AI를 이해하고 판단할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라면, 실제 업무에서는 ‘AI 핸드북(AI Handbook)’이 기준점 역할을 한다. AI 핸드북은 직원들이 새 AI 도구를 쓰거나 이를 업무 방식에 적용하려 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내부 직원용 자료라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지만, 핸드북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는 AI를 새롭게 업무에 쓰려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AI 체크리스트(AI Checklist)’다. AI를 쓰기 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했는지, 쓰려는 도구가 BBC에서 승인된 도구인지, 편집 책임자와 활용 목적을 공유했는지, 추가 검토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짜여 있다.

언뜻 단순한 확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의미는 훨씬 크다. AI 활용 여부를 개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조직 차원의 검토 절차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BC의 AI 핸드북은 “AI를 쓸 수 있는가”를 넘어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AI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의 잣대를 제공한다.

본사 뉴스룸에서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직접 접하며 필자도 기자로서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필요한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초기에는 AI를 업무에 어떻게 접목할지,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할지 막연한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BBC의 교육 과정과 가이드라인은 AI를 쓸 수 있는 영역과 주의할 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됐다.

AI 시대에도 언론인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올바른 편집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BBC의 AI 교육과 운영 체계가 강조하는 것 역시 기술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책임 있게 쓸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4) AI 시대, 더 무거워진 ‘사람’의 판단

앞서 살펴본 BBC의 교육과 운영 체계 밑바탕에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이 있다. 바로

사람의 검토이다. BBC는 생성형 AI가 뉴스룸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편집 판단을 AI에 맡기는 것은 분명히 경계한다.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BBC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나 AI 기반 도구가 취재·제작 과정을 지원(support)하거나 보조(assist)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편집적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²³⁾ 데이터 분석이나 문서 검토, 아이디어 구상, 번역, 음성·영상을 문자로 바꾸는 전사(transcription)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서는 AI 활용 여지를 열어 둔다. 그러나 AI가 내놓은 정보와 결과물은 반드시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정확성과 맥락을 판단해 이를 최종적으로 콘텐츠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은 언제나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뉴스와 시사, 사실 기반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편집 판단을 대신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콘텐츠 제작에 반영되면, 정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BBC는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편집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하는 데 주력한다.

[그림 7] 뉴스와 시사 콘텐츠는 BBC AI 거버넌스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다.



* 출처: BBC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취재한 자료 중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맥락에서 전달할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을 헤아리고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BBC가 강조하는 것은 AI가 판단을 대신하는 미래가 아니라, 기술의 장점과 인간

²³⁾ BBC, <Guida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BC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ance/use-of-artificial-intelligence>

의 판단이 함께 작동하는 책임 있는 저널리즘이다. 이 철학은 뉴스룸 운영 전반에도 반영된다. BBC의 AI 활용은 새 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AI 활용 교육, 내부 가이드라인, 업무 절차, 기자와 편집 책임자의 역할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하며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BBC의 사례는 AI 시대의 뉴스룸이 기술과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05

2026 3rd WORLD MEDIA TRENDS

생성형 AI 파일럿과 뉴스 서비스 혁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BBC는 공영언론으로서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 기술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고 시청자에게 더 나은 경험과 접근성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기술 활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와 새로운 과제를 파악하며, BBC의 저널리즘 가치와 공적 책임에 맞는 활용 방식도 함께 찾아가고 있다.

이런 접근은 BBC가 생성형 AI를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험과 학습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만큼 BBC는 다양한 파일럿으로 AI가 뉴스 제작 과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시청자가 콘텐츠에 어떻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기존 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새 서비스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BBC가 진행하는 모든 파일럿은 결국 “이 기술이 공영 서비스로서의 가치(public service value)를 어떻게 높이고,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BBC가 실험하는 것은 AI 자체라기보다, AI로 공영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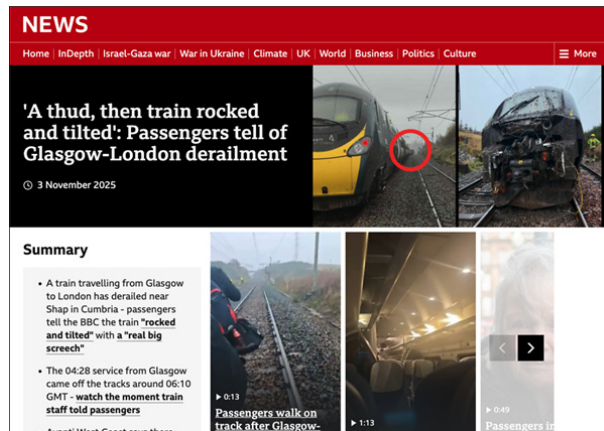
1) 생성형 AI 파일럿: 뉴스 제작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

BBC는 2024년부터 다양한 파일럿으로 생성형 AI가 뉴스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해왔다. 2025년에는 그동안의 실험을 바탕으로 일부 활용 사례를 실제 뉴스 서비스와 제작 환경에서 검증하는 단계로 넓혔다. BBC가 특히 뉴스 영역에서의 AI 활용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뉴스, 시사, 사실 기반 저

널리즘은 정확성과 편집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BBC의 생성형 AI 파일럿은 AI가 기사를 대신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제작 과정을 개선하는 방향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눈에 보기 요약(At a glance summaries)’ 파일럿이다. 긴 온라인 뉴스 기사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보여주는 이 기능은 독자가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숏폼 형태의 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이 파일럿은 요약 기능을 통해 뉴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험한 사례다. 파일럿의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기자가 승인된 프롬프트로 AI에게 요약 초안을 만들도록 요청한 뒤, 직접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거쳐 공개하는 식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AI는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보조 도구일 뿐, 무엇을 전달할지 최종 판단하고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사람 기자다.²⁴⁾

[그림 8] BBC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긴 기사의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뉴스 요약 기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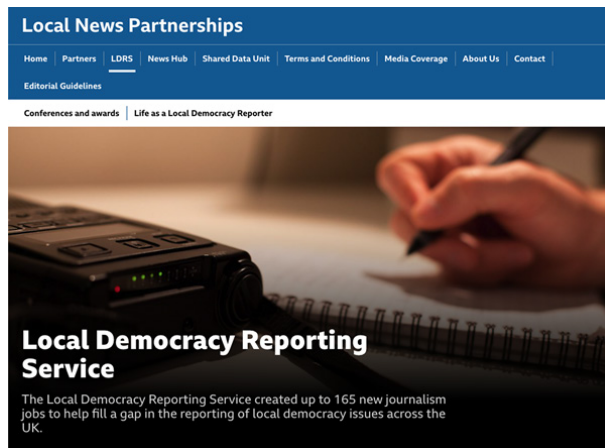
* 출처: BBC

또 다른 사례는 ‘BBC 스타일 지원(BBC Style Assist)’ 도구다. 이 파일럿은 기존 뉴스 기사와 콘텐츠 형식을 BBC 뉴스의 자체 스타일(house style)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다. BBC는 영국 지역 뉴스 생태계와 협력하는 ‘지역 민주주의 보도 서비스(Local Democracy Reporting Service, LDRS)’를 통해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 관련 뉴스를 받고 있다. LDRS는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만든 지역 밀착형 저널리즘을 BBC와 공

²⁴⁾ Talfan Davies, R., <BBC to launch new Generative AI pilots to support news production>, BBC Media Centre, 2025.6.27., <https://www.bbc.co.uk/mediacentre/2025/articles/bbc-to-launch-new-generative-ai-pilots-to-support-news-production/>

유하는 공공적 뉴스 파트너십인데, 이렇게 받은 기사는 BBC 온라인 뉴스 형식에 맞게 다시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든다는 점이다.²⁵⁾

[그림 9] BBC는 LDRS를 통해 제공받은 지역 언론 기사를 BBC 뉴스 형식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에 생성형 AI를 시범 활용하고 있다.



* 출처: BBC

BBC 스타일 지원 도구는 바로 이 제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BBC 연구개발팀(BBC Research & Development)이 개발한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기반으로, 기존 BBC 기사를 학습한 AI가 BBC 뉴스의 문체와 형식에 맞춘 초안을 작성하는 식이다. 이후 해당 팀의 선임급 기자(senior journalists)가 기사를 다시 검토해 정확성을 확인한 뒤 최종 게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BBC 스타일 지원이 새 기사를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재와 기사 작성은 여전히 사람 기자와 지역 언론 파트너사가 맡고, AI는 이를 BBC 뉴스 형식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만 쓰인다. 즉 최종 판단과 편집 책임은 여전히 BBC 기자에게 있다.

BBC는 이런 파일럿으로 단순히 “AI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만 살피지 않는다. 실제 뉴스 제작 과정에서 AI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 어디서 한계가 드러나는지, 편집 기준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앞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힐지도 기술 자체의 잠재력만으로 정하지 않고, 파일럿에서 쌓인 검증 결과와 뉴스룸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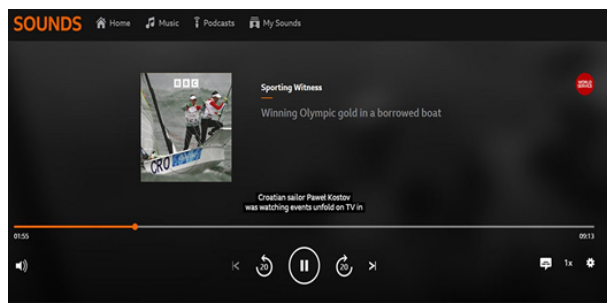
²⁵⁾ Talfan Davies, R., <BBC to launch new Generative AI pilots to support news production>, BBC Media Centre, 2025.6.27., <https://www.bbc.co.uk/mediacentre/2025/articles/bbc-to-launch-new-generative-ai-pilots-to-support-news-production/>

2) 접근성 및 포용성 확대: AI가 넓히는 공영 서비스의 가치

BBC의 생성형 AI 활용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접근성과 포용성(accessibility and inclusion)’의 확대다. 더 많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 공영언론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BBC는 생성형 AI로 공영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이 BBC 저널리즘에 접근하게 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언어와 장애, 지역의 장벽을 낮춰 뉴스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BBC의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BBC 사운즈의 자막 생성 파일럿(AI-generated subtitles pilot)이다. BBC Sounds는 매달 약 2만 7,000시간에 달하는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청각 장애나 난청, 이명 등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음성 기반 콘텐츠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영국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약 1,8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대한 양의 오디오 콘텐츠를 모두 사람이 직접 전사해 제공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벽이 있었다.²⁶⁾

[그림 10] BBC 사운즈 자막 생성 파일럿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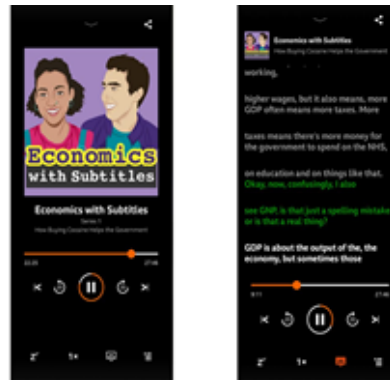


* 출처: BBC

BBC는 이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음성 인식 AI 기술로 자막과 대본을 만드는 파일럿을 진행했다. 음성-텍스트 변환 AI 도구인 위스퍼 AI(Whisper AI)로 자막 초안을 만든 뒤 편집팀이 검수하는 방식으로, BBC 사운즈의 189개 프로그램과 팟캐스트에 자막을 제공했다. 이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웠던 정보 접근 기회를 AI가 넓힐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²⁶⁾ Dimri, A., <Using Gen AI to add subtitles on BBC Sounds>, BBC Media Centre, 2024.8.29., <https://www.bbc.com/mediacentre/2024/using-gen-ai-to-add-subtitles-on-bbc-sounds>

[그림 11] BBC는 음성 인식 AI를 활용해 오디오 콘텐츠의 자막과 대본을 자동 생성하는 파일럿을 진행했다.



* 출처: BBC

비슷한 맥락에서 BBC는 스포츠 콘텐츠에서도 AI 활용 여지를 다각도로 실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BBC 사운즈에서 진행 중인 축구 팬 대상 맞춤형 오디오 브리핑 파일럿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18개 축구 구단 팬을 대상으로 한 이 파일럿은 기자들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요약하고 이를 오디오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도 AI는 새 기사를 쓰는 데 활용되지 않으며, 만들어진 스크립트와 음성은 공개 전 반드시 편집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는다.

또 BBC 스포츠는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히 전하기 어려웠던 경기 정보를 폭넓게 전달하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라디오 중계를 문자로 바꾸고 요약해 라이브 텍스트 중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취재 인력과 제작 여건 등의 한계로 이전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경기까지 시청자가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파일럿의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도 AI는 초안 작성과 정보 정리 등 기초 작업만 지원할 뿐, 최종 공개 여부와 내용에 대한 편집 판단은 여전히 BBC 기자가 맡는다.²⁷⁾

3) AI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확장: BBC 뉴스 폴스카 사례

BBC가 AI 활용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지점은 언어 장벽을 넘어 저널리즘의 도달 범위를 글로벌로 넓히는 것이다. 2025년 6월 BBC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

²⁷⁾ BBC, <What we're doing with AI – Generative AI pilots>, BBC About the BBC (Reports & Policies), <https://www.bbc.co.uk/aboutthebbc/reports/policies/what-were-doing-with-ai/#generativeaipilots>

로 폴란드어 뉴스 서비스 'BBC 뉴스 폴스카(BBC News Polska)'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폴란드어 사용자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전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²⁸⁾

[그림 12] BBC는 폴란드어 뉴스 서비스인 BBC 뉴스 폴스카를 출시하며 AI 번역 기술 활용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 출처: BBC

흥미로운 점은 BBC가 이 서비스를 출범하며 AI 번역 기술을 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서비스에서 AI는 기존 BBC 뉴스 콘텐츠의 번역 초안을 만들어 제작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종 결과물은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기자들의 검토와 편집을 거치고 BBC의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한 후에야 시청자와 독자에게 제공된다. BBC 뉴스 폴스카는 이런 과정을 거친 번역 기사뿐 아니라, 폴란드어를 쓰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기사와 전문적인 지역 관점을 담은 분석도 함께 제공해 현지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AI가 글로벌 저널리즘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과거에는 언어와 인력의 한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콘텐츠 제공 범위를, 이제 AI 기술과 인간의 편집 역량으로 더 다양한 언어권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BBC 뉴스 글로벌 총괄책임자(BBC News Global Director and Deputy CEO) 조나단 먼로(Jonathan Munro)도 BBC 뉴스 폴스카 서비스 시작을 알리며 “허위정보와 미디어 자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환경에서, BBC가 전 세계 더 많은 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 저널리즘의 역할을 넓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²⁹⁾

28) BBC, <BBC launches Polish language news service>, BBC News, 2025.6.24., <https://www.bbc.co.uk/news/articles/cwyk19442r3o>

29) BBC, <BBC World Service to launch new offer in Polish>, BBC Media Centre, 2025.5.22., <https://www.bbc.co.uk/mediacentre/2025/bbc-world-service-to-launch-new-offer-in-polish>

4) BBC R&D와 블루룸: 미래 미디어 환경을 실험하는 공간

BBC의 AI 활용은 실제 서비스 적용을 넘어 미래 미디어 환경을 준비하는 연구와 실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BBC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팀이 있다. BBC R&D팀은 새 기술이 시청자와 독자의 경험, 미디어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연구하는 핵심 조직이다.³⁰⁾

특히 BBC R&D가 운영하는 블루룸(Blue Room)은 소비자 기술 연구 및 시연 공간(consumer technology research and demo lab)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미디어 관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분석한다.³¹⁾ 실제로 블루룸에는 제조사별 스마트 TV와 스마트 스피커, 모바일 기기, 게임 콘솔, 스트리밍 플랫폼, AI 서비스 등 전 세계 이용자가 쓰는 다양한 기술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림 13] BBC 블루룸에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 환경이 구현돼 있다.



* 출처: BBC

이를 통해 BBC는 새 기술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사람들이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경험하게 될지도 함께 연구한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AI 관련 세션과 시연 프로그램을 열어 BBC 구성원들이 새 기술의 강점과 한계를 직접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술이 뉴스 제작과 콘텐츠 소비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고,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BBC가 블루룸에서 실험하는 것은 새 기술 자체만이 아니다.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로 앞으로 시청자와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되고, 공영 서비스를

30) BBC, <BBC Research & Development – Our Purpose>, BBC R&D, <https://www.bbc.co.uk/rd/about/our-purpose/>

31) BBC, <BBC Blue Room>, BBC, <https://www.bbc.com/blue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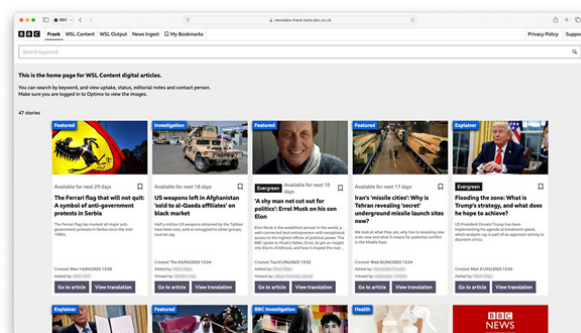
어떻게 넓힐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블루룸의 중요한 역할이다.

5) AI 시대, 공영언론의 실험은 무엇을 향하는가

지금 BBC가 진행하는 여러 생성형 AI 파일럿을 보면 공통된 방향이 보인다. 뉴스 요약, 기사 형식 조정, 번역, 음성 기록, 자막 생성, 추천 서비스 등 분야는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는 “AI라는 기술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놓여 있다. 즉 기술 도입 자체보다 공영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AI가 주는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을 적극 살피면서도 최종 편집 판단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BBC가 다양한 파일럿으로 검증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14] BBC는 번역과 전사, 음성 변환 등 다양한 AI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



* 출처: BBC

생성형 AI가 뉴스 제작과 전달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지만, 언론에게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와 결과물을 시청자와 독자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다. 뉴스에서는 작은 오류라도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시청자나 독자의 판단,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와 왜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뉴스룸의 핵심 과제가 된다.

BBC가 AI 거버넌스(AI Governance)를 무겁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AI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새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도 정확성, 공정성, 편집적 독립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체계다. AI 거버넌스의 요체는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설계하는 데 있는 것이다.

1) AI 뉴스 요약 실험이 보여준 한계: 정보의 ‘왜곡’

2025년 2월 BBC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뉴스 요약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AI 시대 저널리즘의 신뢰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BBC는 주요 AI 챗봇이 같은 뉴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전달하는지 평가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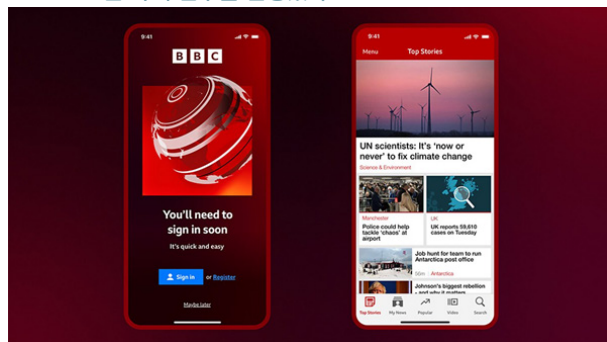
연구 대상은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코파일럿(Copilot), 구글(Google)의 제미니(Gemini),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 4종이었다. BBC는 자사 웹사이트의 뉴스 콘텐츠를 바탕으로 AI 서비스에 질문을 입력한 뒤, 나온 답변을 BBC 기자들이 직접 평가하게 했다. 평가 기준에는 사실 정확성, 공정성, 원문 콘텐츠의 적절한 반영 여부 등이 포함됐다. 결과는 생성형 AI가 뉴스 정보를 다루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뉴스 관련 질문에 대한 AI 답변 중 51%는 어떤 형태로든 심각한

³²⁾ BBC, <Groundbreaking BBC research shows issues with over half the answer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sistants>, BBC Media Centre, 2025.2.11., <https://www.bbc.com/mediacentre/2025/bbc-research-shows-issues-with-answers-from-artificial-intelligence-assistants>

문제(significant issues)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BBC 콘텐츠를 출처로 제시한 답변 중 19%는 잘못된 사실, 숫자, 날짜를 담고 있었다. BBC 기사에서 가져왔다고 표시한 인용문 가운데서도 13%는 실제 기사에 없거나 내용이 바뀐 경우였다.³³⁾

[그림 15] BBC는 주요 AI 챗봇의 뉴스 정보 전달 정확성을 평가하는 자체 연구를 진행했다.



* 출처: BBC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 오류에만 있지 않았다. 일부 AI 답변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최신 정보와 과거 정보를 혼동했다. 원래 기사에 없는 해석이나 표현을 임의로 덧붙이는 문제까지 있었다. 생성형 AI의 대표적 문제로 알려진 ‘환각’이지만, BBC는 이를 더 넓은 개념인 ‘왜곡(distortion)’으로 설명했다. AI의 위험은 허위 정보를 만드는 데만 있지 않고, 기존 정보를 잘못 조합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빠뜨려 이용자가 사실로 오인할 만한 답변을 만드는 데도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BBC 뉴스·시사 부문 최고경영자(CEO) 데보라 터네스(Deborah Turness)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생성형 AI가 분명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사실처럼 전달되는 상황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주는 혜택의 대가로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³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왜곡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AI 서비스는 직책에서 물러난 정치인을 여전히 현직인 것으로 설명했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금연 관련 권고 내용을 잘못 전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³³⁾ BBC, <AI chatbots unable to accurately summarise news, BBC finds>, BBC News, 2025.2.11., <https://www.bbc.co.uk/news/articles/c0m17d8827ko>

³⁴⁾ Turness, D., <AI Distortion is new threat to trusted information>, BBC Media Centre, 2025.2.11., <https://www.bbc.co.uk/mediacentre/2025/articles/how-distortion-is-affecting-ai-assistants/>

중동 분쟁 관련 답변을 하며 BBC 기사를 출처로 제시했지만, 원문에 없던 표현을 임의로 추가해 사건의 맥락을 기존 보도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었다.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뉴스 영역에서 AI 활용의 출발점은 기술의 효율성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파일럿 사례에서 봤듯 BBC는 AI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기술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 못지않게,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BBC가 강조하는 AI 거버넌스 역시 이런 균형, 즉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AI 시대의 신뢰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BBC의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를 뉴스 제작과 전달 과정에 쓸 때 왜 검증 체계가 필수인지 보여준다. 특히 중요한 것은 AI가 만든 결과물이 그 자체로 완성된 콘텐츠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BBC가 진행한 AI 파일럿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원칙도 같다. AI가 초안을 만들거나 작업 과정을 도울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맥락을 판단하는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

예를 들어, 뉴스 요약 기능을 실험하는 한눈에 보기 파일럿에서는 AI가 요약 초안을 만들지만 사람 기자가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한 뒤 공개한다. BBC 스타일 지원 역시 AI가 BBC 뉴스 스타일에 맞춘 초안을 내놓지만, 선임급 기자가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인한 뒤에야 독자에게 제공된다. BBC 사운즈의 AI 기반 자막 생성과 번역 실험도 AI가 작업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뿐,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편집팀의 검토를 거친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오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AI 시대에도 저널리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에 가깝다. BBC가 강조하는 투명성도 같은 맥락이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와 역할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다.

3) 기술보다 무거운 것은 신뢰를 만드는 구조

BBC의 AI 접근 방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AI를 어떻게 써야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이어갈 수 있는가다. 생성형 AI는 분명 언론사가 더 많은 시청자와 독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저널리즘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확한 정보와 왜곡된 콘텐츠가 더 빠르게 퍼질 위험도 안고 있다.

결국 AI 시대에 언론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줄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 기준, 정보 검증 절차, 인간의 최종 책임, 투명한 소통이 따로따로 놓이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

BBC가 보여주는 AI 거버넌스의 요체도 여기에 있다. AI 시대에도 저널리즘의 경쟁력은 신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활용의 범위나 속도가 아니라, 기술을 책임 있게 쓰며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07

2026 3rd WORLD MEDIA TRENDS

나가며

BBC 사례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생성형 AI의 활용 자체가 아니다. 새 기술을 조직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저널리즘의 원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 방식이야말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생성형 AI는 분명 언론에 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번역과 자막 생성, 뉴스 요약, 데이터 분석, 콘텐츠 추천 등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저널리즘을 전할 기회를 만든다. 언어와 접근성의 한계를 낮추고 새로운 시청자·독자층과 만날 접점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빠르게 바뀌면서, AI는 언론이 독자와 연결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BBC의 AI 거버넌스 사례가 보여주듯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폭넓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언론은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투명성, 신뢰를 요구받는다. 생성형 AI가 주는 높은 생산성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도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기술을 도입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책임 있게 쓸 수 있는 원칙과 조직 문화를 함께 갖추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BBC는 AI를 별도의 기술 프로젝트로 다루지 않았다. AI 원칙을 먼저 세워 편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AI 정책을 수립했으며, 교육 시스템과 AI 핸드북, 검증 체계, 다양한 파일럿을 하나의 거버넌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또 기술을 들이기 전에 이를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설계했다.

한국 언론에서도 생성형 AI를 둘러싼 관심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여러 언론사가 AI 기반 뉴스 서비스와 자동화 도구를 들고 있고, 관련 논의도 전보다 훨씬 활발해졌다.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관심을 옮겨야 할 때다. AI 활용의 성패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원칙과 체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뉴스룸에서 AI가 저널리즘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지켜보며, AI가 한국 언론에도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었다. 예를 들어 번역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면 국내 저널리즘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해외 독자와 직접 만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접근성 기술은 장애인과 고령층을 포함해 더 다양한 국민에게 장벽 없이 뉴스를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포용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의 공적 책무와도 맞닿아 있다. 반복적인 업무가 줄면 기자들이 탐사보도와 현장 취재, 심층 분석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있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를 넓히는 데도 기술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회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AI가 가져올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가치로 이어지려면 이를 활용하는 원칙과 책임 구조가 중요하다. BBC 뉴스룸에서 지켜본 AI 활용 방식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 AI는 저널리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넓히는 도구이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조직의 가치와 사람의 판단이다.

생성형 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뉴스룸의 업무 방식도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언론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AI가 저널리즘의 생산이나 전달 방식은 바꿀 수 있어도, 무엇이 진실인지 검증하고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저널리즘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